

뛰임

[뽀]의 옛말

두 발을 모아 몸을 솟구쳐 앞으로 나아가는 몸짓을 뜻하는 말로
높은 곳으로 오르거나 넘어서는 KT노동조합의 위상을 상징

뛰임

KT노동조합 소식지
2010 Vol.4



장바구니 사용으로 멋진 소비자 되기

● 주말이면 마트에 장보러들 가지죠?
그런데 장바구니는 챙기셨나요?

지난 10월부터 전국의 대형마트가 일회용 비닐봉투 판매를 중단했죠.
대신 다양한 규격과 재질의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보급하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은 이 봉투를 구매해 쇼핑백으로 활용하고
가정에서 쓰레기 종량제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과 함께 장바구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죠.
장바구니는 촌스럽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다양한 디자인과 스타일의 '에코백' 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스타들과 인기 연예인들의 사용이 목격되면서,
패션 아이템으로 급부상한 에코백은 사실 먼 소재의 장바구니입니다.

일회용 봉투 사용을 줄이고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고안된 에코백은
평소 일상용 가방으로 사용하기에도 손색이 없어서
유행을 좇는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인기입니다.

평소엔 소지품을 넣고 다니는 보조 가방으로 사용하고
쇼핑할 때 쇼핑백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전천후 아이템!
에코백으로 스타일도 살리고 환경도 지키는
멋진 소비자가 돼 보는 건 어떠세요?



Contents | 2010 Vol.4 |

KTTU NEWS

2010 단체교섭	04
노사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	05
KT그룹노동조합 사랑의 헌옷 나눔행사	
중고생 자녀 무료인터넷 교육 신청	06
LH공사노동조합 · 인천국제공항공사 MOU체결	
KT노동조합 동우회 정기총회 개최	07

일하는 멋

Interview	홍고객부문 서유열 사장	08
여성만세	저널리스트로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김영미PD	12
KTTU 클릭	만화로 보는 스마트 워킹	16
KTTU 포커스	UNI 여성위원회 토론회	18
KTTU 칼럼	프랑스 파업의 이해	20

사는 멋

KTTU 지방본부탐방기	본사지방본부	22
KTTU 지부탐방기	대구지방본부 경주지부	26
KTTU 현장	경주지부 특별기동팀	32
	윤기대 조합원	
	강서무선네트워크운용담당지부	34
	오희표 조합원	
Partner	KT렌탈 노동조합	36
What's up	소셜네트워크의 진화는 계속된다	38

즐기는 멋

Space Touch 1	북한산에서 스파이더맨을 만나다_KT산악회	40
Space Touch 2	동심의 추억 속으로 떠나는 겨울 눈꽃열차여행	44
Health	겨울철 약이 되는 건강차	48
Letter	Youth 장학생 감사편지	49

KT노동조합 소식지 2010 Vol.4

이 책에 실린 글과 이미지는 KT노동조합의 허락 없이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전재할 수 없습니다. 발행인 | KT노동조합 위원장 김구현 편집인 | KT노동조합 교육선전실장 허진 발행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KT노동조합 031-727-2820 발행일 | 2010년 12월 10일(격월간) 제작 및 디자인 | KT문화재단 02-3414-2053 인쇄 | 삼림인쇄 02-469-7111



노사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 시상식



노사문화대상은 정부가 노사상생협력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난 199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매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사업장 중에서 현지실사와 경진대회를 거쳐 탁월한 기업을 선정, 포상을 수여하고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칠 계획이다.

KT그룹노동조합 사랑의 헌옷 나눔행사

○ KT그룹노동조합 협의회(의장 김구현)는 지난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사회공헌활동 일환으로 “사랑의 헌옷 나눔행사”를 개최 하였다. KT노동조합(강북, 강남, 서부지방본부)을 비롯한 회원 노조는 방한리류 5,000여점을 모아 노숙인들의 쉼터인 “따스한 채움터”에 기증 하였다. 이번 행사는 장롱 속에 방치된 겨울 헌옷들을 모아 소외계층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숙인들에게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편 헌 옷 나눔행사는 KT링크스, KT텔레캅, KT렌탈, KTds, KT파워텔, KT테크, KTN노조가 동참했다.



○ 노동조합과 회사는 11월 29일(월) '2010 노사문화대상 시상식'에서 최고 상인 대통령상을 수여받았다. 이날 시상식에는 고용노동부 김순림 성남지청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KT노사가 함께한 2010년 활동에 대한 영상을 시청한 뒤, 곧바로 시상이 진행됐다. 이와 관련 김구현 위원장은 지난 24일(수) 고용노동부 주관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상 수상은 노사간 노력도 없지 않았지만, 전적으로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2만5천 조합원들의 공”이라고 밝히고, “KT노사문화가 모범적 사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활동들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13일(월) 2010년 노사문화대상 기업으로 KT와 행남자기 등 12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심사에서는 KT노동조합의 호스트운동과 KT노사상생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H2O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0 단체교섭 마무리

○ 노동조합과 회사는 10월 28일(월) 2010 단체교섭 가합의안에 대한 조합원총회를 실시, 88.3% 찬성으로 같은 날 저녁 9시 44일 만에 협정서에 정식으로 조인했다. 협정서는 ▲인사평가그룹 통합 ▲기준연봉체계 개선 ▲퇴직연금제도 도입 및 중산정산 시행 ▲상조서비스 지원 ▲주택자금등 대부이자율 인하 ▲선택적 복지포인트 증액 ▲전 직원 아이패드 지급 등을 담았다. 2010 단체교섭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출발했으나, KT발전과 통합이후 복지균형이라는 대승적 기조 아래 상호 이해를 넓힐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하게 됐다. 노동조합은 2010 단체교섭 중점을 조합의 역할과 향후 방향 및 조합원의 임금수준유지, 복지증진에 맞췄다. 아울러 회사의 성장 미래를 일정부분 담보함으로써 조합원의 고용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했다. 특히, 지난해 단체교섭에서 2010년부터 고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2009년 실적급여 대비 올해 급여

인상률이 평균 5.94% 증가했다. 2009 합의에 따른 2010 임금인상내역을 살펴보면, 제도개선 인상률은 평균 3.3%, 인사평가 인상률은 2.7%에 달한다. 이에 2010년 단체교섭은 당장의 임금인상 보다는 조합원들의 고용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이 우선이라는 판단 하에 합의했다. 특히 보수제도 변경에 따라 내년도 임금 손실을 우려할 수 있으나 2011년 임금조정계수(∞)를 1.01이상으로 하여 현 임금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따라서 2011년 단체교섭을 통해 ∞값이 결정되면 고과 + 성과급이 확정됨에 따라 평균임금이 최종 결정된다. 또한 성과급 차등폭 확대는 일정 부분 성장동력을 키울 수 있다는 확신에서 노동조합이 어렵게 결단한 사항이며, 급식통근비 실적급화로 퇴직금이 1인 평균 250만원 정도 삭감되었으나 복지포인트 100만원을 매년 추가 지급해 손해 부분을 보전키로 했다.

중고생 자녀 무료인터넷교육 추가 접수

○ 노동조합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HOST운동'의 일환으로 임직원 중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무료 인터넷교육을 접수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 채널을 통해 홍보를 했음에도 시기를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한 임직원 자녀를 위해 아래와 같이 무료 인터넷교육 신청을 추가로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신청하실 분은 해당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 홈페이지(kttu.or.kr) 통해 접수

중고생 자녀 무료인터넷교육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11월 1일(월) ~ 마감 공지 때까지
- 접수방법 : kttu.or.kr 접속 → 행복나눔 → 무료인터넷교육 → 각각 중/고 신청하기
- 학습사이트 주소
중학생 : http://7wisehome.kr (문의 ☎ 1577-7111)
고등학생 : http://ktedui.com (문의 ☎ 1577-8558)
- 신청 방법 예시
1. 노동조합 홈페이지 접속 (http://kttu.or.kr)
2. 사이트 위(TOP)메뉴 우측 "행복나눔 → 무료인터넷교육" 클릭
3. 화면 아래 쪽 "중학생·고등학생 선택 신청하기" 클릭
4. KT 직원 인증 "사원정보 확인"
5. 자녀정보 등록 "이용자 ID 신청", "연락처 정보", "학교 정보" 등
6. 등록 완료 후 해당 사이트에서 "등록한 ID 이용" 강좌 수강

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과 MOU체결



○ KT노동조합(위원장 김구현)은 10월18일(월) 한국토지주택공사 노동조합(위원장 정종화), 11월2일(화) 인천공항공사 노동조합(위원장 강용규)과 양측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복지증진과 상호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측은 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 조합간부와 회사 임원들이 참석하여 조합원의 복지향상은 물론 노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상호 노력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하는 등, 실질적 협력사업의 발굴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김구현 위원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MOU체결에서 "양 노동조합이 비록 분야는 다르지만, 민주적 조합 운영을 통해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은 같다."라고 말하고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양 노동조합이 연대하여 조합원들에게 더 큰 혜택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정종화 위원장 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금의 어려움 속에서도 변화와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며 양 노동조합의 복지향상과 공동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것을 약속했다.

또한 김구현 위원장은 인천공항공사 노동조합과의 MOU체결에서 "노동환경의 변화로 융합과 교류는 절실한 시대적 요청이 됐다."고 말한 뒤 "오늘의 작은 만남이 훗날 큰 열매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혀 MOU체결을 계기로 양 노동조합이 더욱 견고한 신뢰와 단결로 동반자적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적·정보교류를 강조하였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과의 MOU체결을 계기로 KT노동조합은 공급 계약을 완료하고 공항공사의 전직원에게 아이폰을 순차 공급하게 됐다. 더불어 인천공항공사의 모바일 오피스 연계시스템과 FMC시스템을 지원하는 등 상호간 실질적 교류 협력을 강화했다.

'KT노동조합 동우회 정기총회' 개최 노동조합 역사 속 인물들 한 자리에



○ 'KT노동조합 동우회 2010년도 추계정기총회'가 지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KT지리산수련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KT노동조합 동우회는 KT(한국통신) 재직 당시 노동조합의 전임 간부급 이상으로 활동한 후 퇴직한 사우들의

모임이다. KT노동조합의 역사 속 인물들이 한 자리에 모인 셈이다. 이번 정기총회에 참석한 김구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국내 최대 통신기업 노동조합의 발판과 역사를 만들어주신 KT노동조합 동우회 최상용 회장님을 비롯한 선배 조합간부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면서 "한국전기통신공사로 출범한 이후 공기업을 거치면서 2002년 민영화 되기까지, 우리나라 100년 통신역사의 중심에서 책임감과 영향력을 행사해주신 선배님들의 열정과 땀이 없었다면 오늘의 KT노동조합은 조직률 80%의 국내 최대 통신노조로서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존경과 감사를 표했다. 이날 참석한 130여 명의 KT노동조합 동우회 회원들은 서로 간의 친목과 우애를 다지는 한편, KT노동조합과 KT의 발전 및 사업지원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동우회 회원들은 비록 몸은 KT와 노동조합을 떠나 있지만, KT조합원들의 권익 신장과 통신 사업의 발전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KT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깃발 아래 어떠한 상황에서도 동지들의 맞잡은 손을 놓지 않는 노동조합의 자세를 이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언제나 편하고 쉽게 찾을 수 있고, 서로의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장으로써의 역할을 잊지 않는 노동조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부디 KT노동조합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 스투럼없는 충고와 지원으로 후배들과 늘 함께 해달라." 당부했다.

동우회 연락처

서울시 중구 충무로 1가 21번지 KT중앙지사 10층
TEL. 2267-0003 FAX. 2277-0111



변화의 핵심은 기존의 익숙함에서 뛰쳐나올 수 있는 용기

인터뷰 - 서유열 홍고객부문 사장

통신업계는 최근 빅뱅이 진행 중이다. 따라서 과거 유선의 한계를 극복하고 유무선 통합 컨버전스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CEO들의 고심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수밖에 없다. KT 역시 기업 문화를 바꾸고 적자 사업을 정리하는 등 통신 융합 시대에 글로벌 ICT 컨버전스 리더로 거듭날 것을 천명했다. 긍정적인 생각이 삶을 최고로 만들어 준다고 말하는 서유열 홍고객부문 사장은 어떤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있을까? 그를 만나 직접 들어보았다.



KT홍고객부문 서유열 사장

Q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고자 하는 KT의 사업 전략 및 비전은?

A KT를 젊고 역동적인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전에 집전화나 초고속인터넷 사업을 할 때는 뭔가 낡고 답답한 이미지로 여기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아이폰과 아이패드

출시, 쿡(QOOK), 쇼(SHOW), 올레(olleh) 등 다양한 변화를 보면서 KT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해 통합KT 출범 이후 KT는 '혁신'의 대표적인 모범 기업으로 대한민국 IT패러다임 변화의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동안 국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1000만 돌파, 세계 최초 광대역통신망(BcN)

olleh KT는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반드시, 하면 된다!” 는 긍정의 힘을 믿으세요.

결과에 치중하지 말고 과정 하나하나에 충실히 임한다면, 설사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 과정의 흔적이 내 인생의 훌륭한 그림이 될 것입니다.

개발, 와이브로(Wibro) 세계 최초 상용화, 국내 최초 실시간 IPTV 상용화, 아이폰과 아이패드 도입, 국내 최초 유무선컨버전스(FMC) 서비스 출시 등 우리 KT 직원들의 피땀 어린 혁신의 노력이 있었기에 이러한 모든 것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KT는 '글로벌 ICT 컨버전스 리더'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스마트', '컨버전스', '오픈'으로 요약된 변화와 혁신을 눈부실 정도로 빠르고 과감하게 추진해왔습니다.

IT 업계 전문가들도 KT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통신업계가 10년 동안 할 일들을 KT가 1년 만에 모두 끝냈다.” 라고 호평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젊은이들 사이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내 기업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제2의 IT 산업 중흥 특히,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기대감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KT가 대한민국 통신 산업의 선도 기업이자 주역이지만, 냉정히 볼 때 매출이나 이익 입장에서는 최대 사업자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과거 유선 중심의 통신 시대에서 Data Explosion 시대로 이동하고 있고, 경쟁자는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유무선 통합 네트워크의 강점을 우리는 지니고 있기 때문에 향후 5년 이내에 30조 매출을 이룰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전망합니다. 머지않아 KT의 제2전성기가 도래할 것이며, 3만2천여

사원의 안정적이고 자랑스런 일터가 됨은 물론, 우리 젊은이들이 선망하는 꿈의 직장으로도 우뚝 설 것이라 자신합니다.

Q KT는 세계 최고 수준의 강력한 유무선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아이폰 도입으로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오며 KT내부에도 변화의 새바람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러한 변화의 원동력은?

A 작년 국내 아이폰 도입은 KT 이미지 변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KT가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우리나라에 스마트폰 열풍이 불기 시작했으며 모바일 생태계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따른 파급 효과는 IT산업은 물론 타 분야에도 크나큰 파급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속한 변화들은 고객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변화시켰고 이에 따른 고객들의 욕구도 다양해졌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무척 어려운 시대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는데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하루가 다른 통신시장에서 결코 주도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직원들 모두의 능력은 뛰어나지만 기존의 사고와 생각의 틀을 깨는 용기와 도전이 필요합니다. 변화의 핵심 원동력은 두려움을 없애고 기존의 익숙한 틀에서 뛰쳐나올 수 있는 용기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과거에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또 다른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Q 지난 100년간 KT를 대표하는 유선전화 사업이 하락하는 것을 보면서 서유열 사장은 새로운 뿌리를 땅에 심자는 전략으로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을 정하고 혁신적인 경영을 해왔다고 호평 받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향후 홈고객부문의 비전과 전략은 무엇인가?

A 개인적으로 홈고객부문이 활성화 돼야 KT 3만 2천여 사원이 잘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홈이 KT의 근간이고 홈이 곧 KT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홈이 살아야만 KT가 사는 길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00년간 유선 전화는 우리를 지켜오고 가족을 살려온 고마운 존재이지만 요즘같이 유선분야가 위축되는 세태에서 이제는 좀 다른 꿈을 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 통신망이 2차선이었다면 이제는 초고속인터넷이라는 100차선 망이 어디든지 깔려 있습니다. 과연 고객에게 무엇을 서비스해야 할까요? 우리가 구축한 브로드밴드에 실릴 무궁무진한 콘텐츠들을 상상해보면 벌써부터 가슴이 벅차 오릅니다. 음악, 글, 영상은 물론 아이가 방과 후 집에서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 공부나 과외도 할 수 있고, 병원에 가지 않아도 간편하게 건강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맞춤형 콘텐츠들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미래가치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라 생각하고 사업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Q 최근 유선시장 감소로 인해 홈고객부문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다. 홈고객부문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일한만큼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사기진작 프로그램은 없을까?

A 정말 열심히 했을 때 보상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사기진작 아닐까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자기가 한 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동기부여가 될 수 없습니다. 사원 여러분들이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한다면 그 다음은 사장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사원 여러분들은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회사가, 내가 만나는 우리 고객이 어제보다 오늘이 뭐가 좋을지, 또 어제의 고객이 오늘 이탈하려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오늘보다 내일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러한 연속적인 과정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합니다. 결과에만 치중하는 사람은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해 과정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이중삼중으로 회사에 짐이 됩니다. 결과에 치중하지 말고 과정에 충실하다 보면 그에 상응한 성과나 보람은 당연히 따라온다고 믿습니다.

Q KT노동조합과 KT와의 노사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과거 KT의 노사관계는 많은 어려움도 있었으나, 김구현위원장과 이석채회장 두 분의 취임 이후 우리 사원들의 근로조건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또한, 이제는 KT라는 회사가 더 이상 KT로만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절실하며 이러한 시점에 노동조합이

호스트운동을 선언하고 실천하는 것을 보면서 새로운 노동운동의 신선한 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모습이 나중에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국민과 고객에게도 사랑 받는 노동조합으로 각인될 것이며 먼 훗날 우리 KT노동조합의 변화는 대한민국의 노동운동을 바꾼 중요한 역사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Q 마지막으로 KT가족들, 특히 홈 고객부문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한 말씀

A 취임해서부터 지금까지 저를 믿고 따라주신 우리 홈고객부문 사원 여러분께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olleh KT는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반드시, 하면 된다!” 는 긍정의 힘을 믿으세요. 결과에 치중하지 말고 과정 하나하나에 충실히 임한다면, 설사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 과정의 흔적이 내 인생의 훌륭한 그림이 될 것입니다. 2011년!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긍정의 힘을 믿고 다 함께 달려가 봅시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혼, 싱글맘, 우울증을 넘어 전쟁터에서 다시 태어나다

김영미 - 분쟁지역전문 프리랜서 피디

전업주부였던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이혼녀와 싱글맘이란 타이틀을 얻었다.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 떠난 동티모르에서 뜻밖에도 저널리스트로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김영미 피디(40). 순탄하기만 했던 인생을 스스로 벗어던진 그녀는 험난하고 고된 길 위에서야 비로소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동티모르에서 다시 시작된 삶

_ 김영미 피디는 이혼 전까지만 해도 잘 하는 것이라곤 설거지가 전부인 평범한 가정주부였다. 대학 졸업 후 바로 결혼, 다시 이듬해 아이를 낳고 내내 살림에만 전념했다. 당연히 직장생활 경험도 없었고, 사회운동이니 뭐니 하는 쪽에도 별 관심이 없었다. 그저 아이 낳고, 밥하고, 청소하고, 남편 뒷바라지 하고... 여자 인생은 다 그런 줄 알았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사는 게 공허해졌다. 가슴에 커다란 구멍 하나가 뚫려 이대로 가다간 꼭 죽을 것만 같았다. 남편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전혀 소통이 되질 않았다. 고민 끝에 이혼을 결심했다. “내가 바람을 피우냐, 때리길 하나?” 남편은 공감이 없는 관계가 얼마나 외로울 수 있는지, 얼마나 허망할 수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지난한 과정을 거쳐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됐다. 세상 물정 모르니 양육비나 위자료는 생각도 못한 채, 아이를 준다는 것만도 고마워 맨몸으로 집을 나왔다. 하지만 먹고 살 길이 막막했다. 식당 허드렛일 자리를 알아보다, 신문 한 귀퉁이에 실린 동티모르 내전에 희생당한 여성들의 사진을 봤다. “대한민국에서 빈털털이 이혼녀에 싱글맘으로 사는 거나 동티모르 여자들이나 비참하긴 마찬가지로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를 친정어머니께 맡기고 자그마한 6mm 카메라만 든 채 무작정 비행기를 탔다. 동티모르어는 커녕 영어도 할 줄 몰랐고, 더군다나 다큐 제작 같은 건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그땅, 그 여성들 사이에 있고 싶었다. “참 이상했어요. 동티모르에 오기 전엔 늘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힘들고 우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물자나 시스템, 모든 것이 부족한 그곳 사람들과 살면서 제 상처가 자연스레 치유되는 느낌이었어요. 똑같은 바다와 평야, 사람들이었지만 제게는 매일 매일이 다른 날들이었어요.” 김피디는 동티모르에서 그렇게 꼬박 1년을 살았고, 당시의 모습을 담은 화면은 지난 2000년, 한 방송사를 통해 ‘동티모르의 푸른 천사’ 라는 다큐멘터리로 세상에 나왔다.

아프가니스탄을 거쳐 이라크로

_ 그 뒤로 그녀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팔레스타인 등 분쟁지역만 찾아다녔다. 카메라를 어떻게 만지는지도 잘 몰랐던 기계치에서 수작의 다큐를 만들어낸 유명 피디가 된 것처럼, 영어, 아랍어,



일어도 부딪치고 넘어져가며 모두 현장에서 배웠다. 그리고 어느 날,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의 모습을 담아보고 싶은 마음에 전쟁이 임박한 이라크에 서둘러 들어갔다. 어떻게 들어간 이라크에서 전쟁이 발발하기 전의 바그다드와 그곳 사람들의 모습을 화면에 담을 수 있었다. 그리고 몇 달 뒤 전쟁이 터졌다. 총성이 난무하는 전쟁터에서 그녀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버틸 수 있었을까. “공포는 인간의 기본 감정이예요. 저라고 전쟁터가 무섭지 않겠어요? 갑자기 전투가 시작되면 저도 겁이 많이 나요. 하지만 그게 제 일이고 직업이잖아요. 무섭다고 못하면 누가 그들의 목소리를 내주겠어요.” 직업병 탓인지 김영미 피디는 지금도 창가 근처에는 잘 앉지 못한다. 유리로 뚫려 있는 곳은 언제 어디서 저격수의 총알이 날아올지 몰라 무섭고 불안해서다. 전쟁영화도 볼 수 없다. 지나치게 현실적인 영화 속 모습과 총성이 자꾸 전쟁터를 떠올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망감 때문에 늘 목숨을 걸고 분쟁지역으로 달려가고 또 달려간다. 전쟁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유린하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되는 삶의 모습을 누군가는 기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동원호, 잊지 못할 필모그래피

_ 그녀를 이야기하면서 동원호 사건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다. 분쟁지역 전문 프리랜서 피디로 널리 알려져 있는 김영미 피디는 지난 2006년 동원호 사건을 단독 취재하면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다. 피랍된 동원호 선원들을 만나러 소말리아까지 가서 찍어 온 화면이 공중파 방송을 타면서 동원호 사건은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동원호 선원들의 처참한 모습은 잊혀져 가던 동원호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환기시켰다. 비행기를 타고 에티오피아에서 소말리랜드를 거쳐 소말리아로, 그곳의 수도인 모가디슈에서도

비행기로 1시간 반을 들어가야 해적마을에 도착하는 멀고도 험한 여정이었다. 사전에 해적들과 취재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상태였지만, 보디การ์ด도 없이 혼자 배에 올라타는 그녀에게 현지통역은 해적들 몰래 가방에 권총을 밀어 넣어줬다. 오랫동안 억류당한 선원들은 그녀가 권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총으로 해적들을 제압하고 나가자고 설득했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고국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그만큼 간절했던 것. 그것을 알기에 그녀 역시 선원들을 두고 나오는 길이 결코 편치 않았다. 배를 내려오면서 그녀는 결심했다. 광화문 앞에서 모금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꼭 협상금을 마련해 다시 오겠노라고. 다행히 방송이 전파를 탄 후 그녀는 선원들의 석방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엄마의 마음으로 다큐를 만든다

_ 방송 프로듀서로서 국내 유수의 방송사는 물론 이미 일본에서 그 능력을 인정받은 김영미 피디. 그녀는 현재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전 세계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생활하며 가족을 주제로 작업하고 있다. 이라크에 점령군으로 파견된 미군 가족들의 이야기다.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살벌한 전장에서, 목숨을 잃는 이들은 겨우 스무 살 남짓의 꽃다운 젊은이들. 살아남은 자들 역시 결코 만만치 않은 후유증을 갖는 터. 이번엔 그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전쟁터를 수도 없이 넘나들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한 아이의 엄마다. 열다섯 살 된 아들이 남자친구처럼 든든하다는 그녀는 “세상을 바꾸는 건



결국 엄마들”이라며 “내가 만든 다큐멘터리는 모두 엄마의 마음으로 만들었고, 그것이 내가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힘”이라고 강조한다. “어떤 때는 인생에 원치 않는 돌부리가 생기기도 해요. 그럴 때 비판하면 정말 힘들어지죠. 저는 인생에 당연히 돌부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넘어질 수도, 다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면 됩니다. 그래서 전 어떤 상황이 닥쳐도 그리 두렵지 않아요.” 환갑까지는 현장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는 김영미 피디. 그녀가 아름다운 것은 인생역전을 이룬 그의 독특한 이력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의 인생을 디자인 하면서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삶의 태도 때문이다. 누구나 살아가지만 누구나 살아있는 것은 아니다. 한 때 죽음을 고민하고 지금도 밥 먹듯이 사지(死地)를 떠도는 그녀이지만, 김영미 피디는 그야말로 생생히 살아있는 사람이다.



만화로 보는 KT 스마트워킹



09:00 저녁에 일찍 들어오실 거죠?
물론이지. 가이 영어책 보자

자~ 이제 출근해 볼까.

09:20 smart working center
진짜 회사 출근할까 나는데~ smart working center

10:30 자네 보고서 아주 좋는데~
화상회의 중

시간 여유가 많아져 보고서 작성을 위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늘어거든요~ 퀄리티는 당연한 거죠.

15:00 업무 집중도는 파파파! 업무 스트레스는 짹짹! 효과는 업업업!

간단한 문서처리는 스마트 폰을 이용하면 끝~

퇴근하세요~ 마사인데 힘 안들어요
스마트워킹 때문에 관찮아요

18:00 smart working center
이러다 아이 낳는 게 버릇 되면 어찌죠? 하하하

스마트워킹은 사무실로 출근해 업무를 보는 기존의 근무 형태를 벗어나 전화 회의, 화상 회의 등 각종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KT는 좀더 역동적인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 'ing'를 붙여 스마트워킹이라고 부릅니다.

저출산, 고령화, 저탄소 녹색성장, 일자리 창출 등 각종 사회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밑거름이 스마트워킹입니다. 스마트워킹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직 문화의 혁신과 법 제도의 정비, 정보기술(IT) 인프라 구축노사를 망라하는 조직 구성원의 인식 확산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래도 회사는 대면문화가 있어야 업무가 원활하게 지속되지 않을까?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워킹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이유는 비용절감과 업무효율 때문입니다. 비용절감은 곧 고용창출로 이어집니다.

스마트 워킹의 도입은 일하는 방식이나 평가 등이 관계 중심에서 절차와 성과 중심으로 바뀌는 패러다임을 제공할 것입니다.

솔직히 좋은 건 알겠는데... 이게 고용불안 요소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예요.

얼굴 도장 더 찍는다고 생산성이 높아진 않습니다.

성과가 올라가고! 연봉도 올라가고!

어려운 과제지만 KT뿐 아니라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충분히 고려할 사항입니다.

2015년 세계 1위 달성!!

KT 2015

smart working

앞으로 KT노동조합은 다양한 사고방식과 개성을 존중하는 스마트 워킹 본 취지에 맞게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경쟁력 강화와 발전적 방향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둘 것입니다.

smart working

노동조합, UNI-KLC '한국과 북유럽 보육정책 비교 토론회' 참가

“한국사회서 보육과 출산, 양성평등 발전시키려면 사회적 공감대 기반돼야”

KT노동조합 ▲불임휴직 ▲유아교육보조비 ▲스마트워킹 ▲리프레쉬 휴직제도 ▲여성전문상담소 등 소개



KT노동조합은 지난 11월 30일(화) 한국노동국제세미나실에서 열린 UNI-KLC(국제노동조합네트워크 한국지역협의회) 여성위원회 주최 '한국과 북유럽 국가의 보육정책 비교 토론회'에 참가해, KT 여성친화제도와 보육정책을 소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KT노동조합 광갑숙 여성국장과 강북지방본부 이효순 여성국장을 비롯해

주한 노르웨이 대사관 관계자, 호서대 유아교육과 한유미 교수, 보건의료노조 이숙희 여성국장, 사무금융노동조합 신은정 여성담당 부국장 및 다수 사업장 노동조합 여성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UNI-KLC 정용건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사회 직장여성들의 대표적 문제는 보육과 출산, 양성평등의 어려움일 것”이라면서 “UNI-KLC가 한국사회

여성사무직을 대표해 많은 것을 요구하고, 환기시키는 다양한 활동들을 늘려가자”고 독려했다. 사례 발표를 위해 참석한 톨로 잉빌드 주한 노르웨이 대사관 관계자는 “노르웨이 양성평등 정책과 보육정책은 국가경쟁력과 연결될 만큼 중요하다”면서 대표적 사례로 △임신·출산으로 인한 채용 불이익 전무 △회사법제정을 통한 상장회사 임원 3% 이상 여성 △공교육 절대우위 - 만1세 미만부터 유치원 보호 혜택 90% 이상 △보육을 위한 기업의 근무시간 유연화 △여성의 경쟁력과 국가경쟁력 상관관계에 대한 치밀한 연구 등을 꼽았다. 이어 호서대 한유미 교수는 “북유럽의 육아지원 정책”이라는 주제로 “기혼여성 취업률이 남성취업률보다 높은 북유럽만의 특성이 가능한 것은 오랜 시간 민주주의·자유·평등이 자리잡았기 때문”이라며 “특히 노르웨이는 육아휴직 시 급여가 100% 보장되며 세계최초로 아버지 할당제를 도입해 남성 육아휴직율이 70%에 육박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보육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휴직제 현실화 ▲부모모두 동등하게 양육에 참여할 수 있는 현실적 토대 마련 ▲보육료 상한제 필요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사회적 공감대를 통한 보육재정 확보 등을 거론했다.

KT 보육시설 교사 1인당 평균 아동 6인... 스마트워킹 등 다양한 제도 시도에 대한 발표

KT노동조합 광갑숙 여성국장은 “기업의 특정제도와 환경만으로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인지 아닌지를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이 확충되어 있다면, 여성친화적 기업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KT노동조합은 오랜 역사를 통해 여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힘써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KT는 출산 후 복직률이 99%에 달하고 여사원 평균근무 연수가 17.6년으로 100대 기업 중 2위를 차지하나, 노동조합은 여성의 고용안정과 승진을 위해 보다 현실적이고 확실한 공감대와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보육교사 1인당 평균 아동 6인꼴로 운영되는 8개의 보육시설 ▲불임휴직 ▲육아휴직 ▲유아교육보조비 ▲스마트워킹 ▲리프레쉬 휴직제도 등이 보장되어 있고, 노동조합 단독으로 ▲여성전문상담소 등을 운영하는 등 “여성의 근무환경 개선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덧붙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를 이용하는 조합원들의 만족도”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KT노동조합은 12개 지방본부 여성국장과 441개 지부 여성부장들의 의견을 수렴해 여성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다 전문적인 제도마련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파업에 대한 이해



집회와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프랑스 총파업 사태가 발생 두어달이 다 돼가는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총파업은 연례행사가 되었지만 이번 파업은 유독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대중교통 수단이 멈추고, 고등학생들까지 길거리로 나서는가 하면, 정유공장 폐쇄로 주유소에 기름이 떨어지는 등 프랑스 사회 전체가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 관심이 갈만도 하죠. 게다가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정년연장 반대’를 내세우고 있으니깐요. 여론조사를 해봐도 60~70%의 프랑스 국민들이 파업에 동조한다는 결과가 나오니 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프랑스 파업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우리 상식과 다른 프랑스의 현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선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정년 연장’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경우 기업들은 정년 단축을 원하고 직장인들은 정년이 늘어나길 원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사회보장 제도가 잘 갖춰진 프랑스는 다릅니다. 현재 법정 퇴직 연령이 60세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그 전에 퇴직합니다. 연금 납입 기간(민간 40년, 공공부문 37.5년)만 채우면 조기 퇴직을 하는데, 평균 퇴직 연령이 58.7세이고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경우 평균 57.5세에 퇴직합니다.

그렇게 일찍 퇴직해서 어찌느냐고요? 프랑스 직장인들이 꿈꾸는 정년은 파리 시내나 근교에 집을 사서 임대료를 주고, 자신은 전원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대수익과 매달 평균

1,500유로 정도의 연금으로 노년을 편안히 보낼 수 있기 때문이죠. 맞벌이였다면 넉넉한 연금으로 해외여행도 가능합니다. 수십 년 동안 이런 노후를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2년을 더 일하라고 한다면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연금 재정의 적자입니다. 올해만 300억 유로(46조원)로 예상되고 해마다 늘어나면서 후손들에게 부담을 지울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이 서로 다른 겁니다. 정부는 연금 수혜자들이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노동계는 정부가 세금만 제대로 걷어도 충분히 적자를 메울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사실 계산상 세금으로 적자를 다 메우지는 못한다는 것을 양측이 다 알고는 있지만, 정부도

할 말이 없는 것은 로레알 그룹의 소유주 베탕쿠르 스캔들 때문입니다. 2007년 대선에서 사르코지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세금 방패법’(세금의 상한선을 정하는 것)을 도입해 로레알 그룹에만 지난해 3,000만 유로의 세금을 돌려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금을 돌려줬던 주무장관(에릭 보르트)이 지금 연금개혁을 추진하는 주무장관이고, 그 장관의 부인은 당시 베탕쿠르 여사의 회계책임자로 각종 탈세를 자문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사르코지 대통령도 베탕쿠르 여사의 장학생이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고통분담을 통한 연금개혁’의 명분이 약해지고 세금 얘기만 나오면 정부가 입을 다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노동계의 연금개혁에 대한 반발의 핵심은 사르코지 대통령에 대한 불신과 반감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거리로 뒤흔쳐온 고등학생들의 경우도 정부는 ‘미래의 직장인인 너희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금제도를 개혁하자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학생들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청년 실업률이 30% 가까운 상황에서, 현재 직장인들의 근무 기간을 늘이면 자신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연금개혁이 현정부에 대한 평가와 연결되다 보니, 노동계 파업에 대한 지지율이 매체에 따라 다르지만 60%~70%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나도

언젠가는 파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남이 하는 파업을 받아들인다’는 관용일 수도 있겠지만, 그 기본은 현정부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렇다면 60%~70%나 되는 국민들이 반대하는 연금개혁을 사르코지 대통령은 왜 굳이 추진하려고 할까요? 2012년 대선을 위한 계산입니다. 확고하게 자신을 지지하는 30%를 끌어안고 가야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어차피 지금 길거리에서 나선 사람들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사르코지를 찍을 사람들이 아닌데, 만약 노동계의 파업에 굴복할 경우 확고한 30%에서 이탈표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죠. 프랑스 대선은 결선투표제(상위 두 명이 2차 투표를 해서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가 당선되는 시스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투표율에 따라 변수가 있기는 하겠지만 확고한 지지세력 30%이 있으면 승산이 높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하원 합동 심의를 앞두고 있는 연금개혁안과 대규모 집회가 또 예정돼 있는 노동계의 파업은 어찌될까요? 모든 행보를 2012년 대선에서의 재선에 맞추고 있는 사르코지 대통령이 물러설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노동계의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끝까지 밀어부쳐 ‘사생결단’의 상황으로 몰아갈 것인지, 아니면 적당한 타협안을 받아들일 것인지...그러나 현재까지는 전자의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무능력은 '최고' 조직 규모는 '최대'

본사지방본부

- 동장군이 코앞까지 성큼 다가왔다. 이맘때면 괜스레 마음이 바빠진다. 그간 소홀했던 지인들에게는 안부인사라도 전하고 싶어지고, 어려운 이웃에게는 평소보다 더 많은 관심과 정성을 기울이게 된다. 때마침 본사지방본부의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장애인들의 손을 잡고 행복한 나들이를 떠났다. 훈훈했던 당일 현장의 온기를 지면을 통해 전하고, 본사지방본부의 한 해를 되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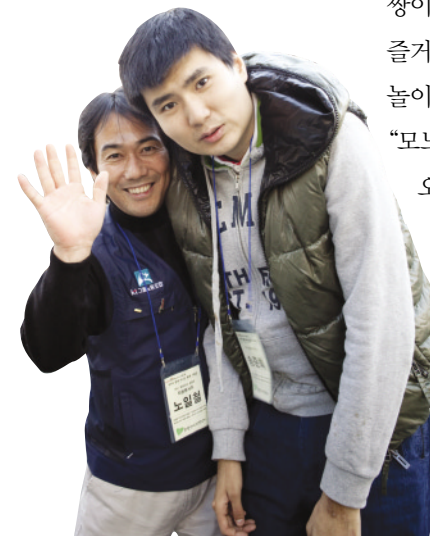


장애우들과 함께한 행복한 나들이

_ 한겨울의 매서운 추위만큼은 아니어도,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불던 지난 11월 9일. 말아톤복지재단 소속 장애인들이 서울의 한 테마파크 입구에 모였다. 오랜만의 나들이에 들뜬 그들은 흥분과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장애인 한 명에 봉사자 한 명이 짝을 이뤄 진행되는 나들이 봉사에 본사지방본부 조합 간부들과 네트워크부문 임직원이 함께한 '사랑의 봉사단' 단원들이 봉사자로 나섰다. 해마다 이어진 합동 봉사활동은 올해도 어김없이 진행됐다.

'2010 가을소풍, KT와 함께 떠나는 올레 가을길'이라는 이름 아래 진행된 노사합동 봉사활동에는 장애인 24명과 봉사자 24명이 참가하여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오전에 실내에서 마음껏 놀이기구를 즐긴 장애우들은 점심식사 후 야외로 나가 보다 다양한 체험을 만끽했다. 하루 종일 정유진 장애우의 손을 꼭 쥐고 다닌 최윤수 여성국장은 "유진이가 우리 집 큰 애와 동갑이라서 더 마음이 짝해요. 놀이기구를 탈 때마다 짱이라며 엄지손가락을 내밀며 좋아하는데 저도 함께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 것 같아 즐거웠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 사이 다른 조 팀원들이 모노레일 앞에 섰다. 놀이기구를 가장 많이 탔다는 이창경 장애우는 "바이킹이 가장 재미있었다"며 "모노레일도 두 번째 타는 거예요. 밖이 추웠지만 괜찮았어요"라며 자랑에 여념이 없다.

오늘 펼친 봉사활동은 본사지방본부의 연례행사 중 하나다. 올해는 예정보다 다소 늦어졌지만, 본사지방본부에서는 이밖에도 시설보수작업, 환경정화활동, 농촌봉사활동, 노력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아울러 지역 발전을 위한 지부 단위의 봉사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져 집 수리, 무료 급식, 이주 노동자를 위한 활동 등 일일이 손에 꼽지 못할 정도다.



현장 도는 데 6개월, 최대 규모의 지방본부

본사지방본부는 32개 지부에 5,600명의 조합원을 둔 전국적인 조직이다. 본사지방본부의 가장 큰 특징은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에 산재해 있다는 것. 지방본부로서 가장 큰 조직으로, 김신 위원장이 현장을 한 바퀴 도는 데만도 6개월 이상 걸릴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간 화합이 잘 되고, 단결력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본사지방본부는 현장 조직과는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스텝부서이다 보니 일에 치중하는 비율이 높아 현장과는 다소 동떨어진 느낌이 들기도 하지요.” 김 위원장의 말에 노일철 조직국장은 “타 지방본부가 현장 중심적이라면, 본사지방본부는 내부 업무 중심적”이라고 덧붙이며, “스텝부서라는 특성상 우수한 조합원들이 많이 모여 있어 그들과 함께 일한다는 것이 자랑스럽지만, 한편으론 현장에 있는 분들처럼 끈끈한 정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는 덜해 아쉽다”고 말한다.

김신 위원장은 다사다난했던 2010년을 돌아보며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지방본부대원대회를 꼽았다. 아울러 이 자리를 통해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경청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두가 합심해 노력한 것이 올해의 가장 큰 성과임을 강조했다. 반면, 위원장 취임 후 계획했던 지부장 가족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아직 실천에 옮기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조합에 몸담고 있으면 아무래도 가정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부장들은 그런 미안함을 조금이나마 털어버리고, 가족들에게는 아버지와 남편이 하는 일을 보여주기 위한 취지로 조만간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가족 간의 정을 돈독히 하고 서로를 조금이나마 더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위원장이 할 일은 조합원들을 자주 만나, 그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그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하는 김신 위원장. 내년에는 더 많은 현장을 방문할 것을 다짐하는 본사지방본부 위원장과 간부들은 다가오는 2011년을 새롭게 맞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형울 정익국장,
천성영 조사통계국장,
노일철 조직국장,
한대웅 교육홍보국장,
김신 위원장, 최윤수 여성국장,
김용범 복지후생국장,
이권배 사무국장



Interview 본사지방본부 김신 위원장

언제나 믿음으로 지켜봐주신 조합원에게 감사합니다

김신 위원장은 입사 2년 만인 1994년에 보은위성지국 지부장으로 조합활동을 시작했다. 주말마다 집회현장을 찾아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라고 말하는 그는 KT노동조합의 산 증인이다. 조합활동을 위해 경기도 분당으로 올라와 본사지방본부 7~9대 조직국장을 지냈고, 2009년 1월에 본사지방본부 위원장에 취임했다. 그렇게 객지생활을 한 지가 벌써 14년째다.

김 위원장은 조합활동을 하거나 조합원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가치로 순수함과 성실성을 꼽는다. 위기를 넘기기 위해 임기응변으로 대응하지 말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시인할 줄 아는 솔직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김 위원장은 조합원을 만날 때도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편안하게 대하려고 애쓴다. 지금도 여전히 자신을 노동가가 아닌 노동자로 생각한다는 김 위원장은 조합원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가서 직접 듣는 것이 최선이라며, 그것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조합활동이라고 말한다. 최윤수 여성국장은 김신 위원장에 대해 “친화력이 무척 좋으시고, 조합원들 한 명 한 명 챙겨주시는 마음이 고맙다”고 전했고, 10년 이상 노동조합활동을 함께한 노일철 조직국장은 “한 번이라도 더 현장을 찾아가서 조합원들의 고충을 듣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라고 귀띔했다.

얼마 전, 노동조합은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상을 통해 현장의 고충과 합리적 노사관계 등을 고려, 최종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교섭을 옆에서 지켜본 김신 위원장은 결코 쉽지 않은 교섭이었지만 잘 마무리되어 다행이라며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올 한해 열심히 똘만큼 2011년에는 반드시 그에 대한 보답이 있는 희망찬 새해가 되리라고 본다.”며 활짝 웃었다.



신라 후예들의 진중하고 넉넉한 품!

경주지부



경주로 향하는 길은 마치 수학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즐겁다. 톨게이트를 지나면서부터 잘달린 도로 양쪽으로는 넉넉한 들판이 펼쳐지고, 나지막한 산들이 병풍처럼 안온하게 도시를 감싸고 있다. 봉긋한 왕릉들을 비롯해 시내 곳곳에 즐비한 유물·유적들은 서라벌 천년의 역사를 말해주는 듯 묵직하고도 신비로운 분위기를 전해준다. 사람은 밭 딛고 사는 땅을 닦기 마련이라 했던가. 경주지부 노동조합 역시 진중하면서도 넉넉한 품으로 손님을 맞이한다.

왼쪽부터 최기원 교육홍보부장,
손상영 여성부장, 이상호 쟁의부장,
김정훈 지부장, 윤웅현 조직부장,
조영돈 복지부장, 고한용 조사통계부장



- _ 경주지사 건물에 올라서면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천마총이 코앞이고, 뒤로는 남산의 유려한 산자락이 부드럽게 펼쳐진다. 이곳이 왜 한 국가의 천년 수도로서 기나긴 역사를 이어왔는지 알 것만 같은 풍경이다.

노동조합 지부 사무실로 들어서니 김정훈 지부장을 비롯해 이상호 쟁의부장, 윤웅현 조직부장, 조영돈 복지부장, 손상영 여성부장, 고한용 조사통계부장, 최기원 교육홍보부장이 반갑게 인사를 건넨다. 휴가를 떠난 김재호 사무부장을 제외하곤 모두 한 자리에 모였다. 경주의 명물인 황남빵과 찰보리빵을 맛보라며 손에 쥐어주는 조합간부들의 얼굴엔 반가움과 온정이 가득 담겼다.

이야기가 시작되니 구수한 사투리가 오가는 것이 여간 정겨운 것이 아니다. 경주빵처럼 달콤하면서도 고소한 분위기랄까. 오랜 세월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들만의 끈끈한 가족애가 느껴진다. 최기원 교육홍보부장은 “지부장님과 쟁의부장님 등 20대 초반에 입사해 91년도부터 함께해온 사람들이에요. 업무는 물론이고 조합 활동에 있어서도 예나 지금이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요.”라며 형님을 바라보듯 친근한 눈길로 조합간부들을 둘러보았다. 김정훈 지부장 역시 “신구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는 지부”라면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형, 동생과 같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부장에 대한 평가(?)로 화제가 이어지자 “경상도 남자라서 무뚝뚝하다.” “술을 좋아하지 않는다.” “드러내지 않고 너무 안으로만 삭힌다.” 등 애정 어린 불평들이 쏟아진다. 그러나 김 지부장에 대한 공통된 의견은 “늘 한결같다.”는 것이다. 김 지부장은 초심을 잃지 않고 자신의 위치에서 개인의 생각을 내세우기보다는 여럿을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왔다. 때때로 이러한 노력은 조합원들에게 단점으로 비춰지기도 하지만, 8년째 지부를 이끌고 있는 힘의 원천이기도 하다.





_ 경주지부는 수년 전 조직개편을 맞아 약 250명이던 사원이 현재 76명(조합원 67명)으로 줄어들었다. 지역은 넓고 사람은 적으니 업무에 허덕이는 것은 당연지사. 특히 인구가 많고 관할구역이 넓은 경주지역의 특성상 업무 부담이 가벼울 수는 없다.

김 지부장은 “대도시의 경우 가입자들이 4~5km 반경 내에 모여 있기 마련이지만, 경주는 인구도 많은 데다, 천년고도로 곳곳에 주민들이 퍼져서 살고 있어요. 때문에 현장에서 일하는 시간보다 이동하는 시간이 더 많은 경우가 허다하죠.”라며 “인원이 부족해 밖에서 개통 업무를 보는 사람이 내부의 보조 역할까지 겸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특별기동팀의 경우 하루 200km 이상 이동하는 것은 기본이다. 매월 지급되는 50만 원의 유류비가 한 달이 되기 전에 동이 나서 외상을 하는 일도 심심찮게 벌어진다고. 관광도시이자 농어촌을 끼고 있는 경주의 복합적인 특성 때문에 영업을 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직원이 주인의식으로 솔선수범하며 특히, 최근에는 직영생산성 우수지사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경주지부가 화기에애한 분위기로 조합원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특유의 넉넉함과 가족적인 분위기 덕분이다. 서라벌의 오래고도 융성했던 역사처럼 경주지부가 앞으로 써나갈 역사가 궁금해진다.



Interview 경주지부 김정훈 지부장

늘 한결같은, 묵직한 경상도 사나이

“노동조합의 존재는 조합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조합원이 조합의 근간이라는 이 소신은 경주지부 김정훈 지부장이 조합 활동을 시작하며 한 순간도 놓친 적이 없다. 그가 경주 남산의 커다란 바위처럼 묵직하고 진중한 느낌을 주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경주지부를 대표하는 직책인 만큼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은 언제나 그의 머릿속을 맴돌고 있다.

경주에서 태어난 김 지부장이 KT에 입사한 것은 1989년의 일이다. 울진으로 발령을 받았다가 1992년 경주로 돌아와 5~7대 집행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노동조합에 발을 담그게 되었고, 2003년부터 8~10대 지부장 직을 수행하고 있다. 많은 경주 시민들이 그러하겠지만, 신라의 천년고도 경주에 대한 그의 애정은 각별하다. “한 왕조의 수도가 한 곳에서 천년 동안 이어진 사례는 세계적으로 드문 일이에요. 최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받은 양동마을을 비롯해 경주 전체가 노천 박물관이나 다름없지요.”

하지만 넓은 지역과 많은 인구 그리고 관광도시이자 농어촌을 아우르고 있는 경주지역의 특성은 언제나 고심거리이다. 울산과 포항의 중공업단지에서 법적인 높이를 초과한 대형 차량들이 야간에 경주를 통과하면서 가공선로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고, 최근에는 시에서 방사선 폐기물 처리장을 유치하면서 국가로부터 받은 기금으로 곳곳에서 도로공사를 벌여 매설된 케이블을 탐지하는 작업까지 크게 늘어났다. “이 때문에 조합원들이 많이 힘들어요. 손쉬운 해결책이 없는 만큼 어려울수록 서로 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저는 물론이고 조합원들이 솔선수범하도록 독려하고 있어요.”

김 지부장이 출근해 처음 들르는 곳은 다름 아닌 당직실이다. 차량에 의해 전주가 파손되는 사고가 많아 지난밤 근무를 선 조합원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다. 그리고 각 사무실을 돌며 한 명 한 명의 조합원들을 만난다. 누가 휴가를 냈는지, 누가 전날 술을 마셨는지까지 파악할 정도로 그의 귀는 조합원들을 향해 쫓겨 열려 있다. “소통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많이 만나고 사소한 것까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소통의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많이 만나고 사소한 것까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소통의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천 년을 이어갈 경주의 맛집

삼릉고향손칼국수

20년 전통을 자랑하는 '삼릉 고향 손칼국수'는 입소문을 타고 경주뿐 아니라 전국의 맛집으로 명성이 자자한 곳이다. 우리 밀을 사용해 손으로 직접 밀어 만든 면은 고소하고, 콩을 비롯한 각종 곡물가루를 넣고 멸치를 우려낸 국물 또한 감칠맛 난다. 유창열 사장의 집안에서 해 먹던 칼국수로 여느 음식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맛이다. 우리밀 손칼국수(5,000원)에 소머리 수육(10,000원), 도토리묵(5,000원), 해물파전(5,000원) 등을 곁들이는 것이 좋다.

■ 주소 경주시 배동 821-1번지 ■ 문의 054-745-1038



황남맷돌순두부

경주 곳곳에 순두부로 유명한 식당들이 많지만, '황남맷돌순두부'는 경주지부 조합원들이 즐겨 찾는 곳 중 하나이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한옥을 개조한 고즈넉한 분위기가 일품이기 때문. 물론 부드러운 두부 맛은 기본이다. 능이버섯두부전골(10,000원), 산송이순두부전골(10,000원), 해물순두부전골(大 28,000원, 中 23,000원), 두부김치전골(大 28,000원, 中 23,000원) 등이 주 메뉴이지만, 두부보쌈(30,000원)도 반드시 맛보길 권한다.

■ 주소 경주시 황남동 155번지 ■ 문의 054-771-7171

녹원정사

천룡사터 인근에 자리한 녹원정사는 그 위치만으로도 입맛을 돋운다. 경주 남산 자락의 넉넉한 풍경과 맑은 공기 그리고 고향집이라도 온 듯 푸근한 식당의 정경은 입은 물론 코와 눈까지 즐겁게 한다. 갓가지 산나물을 넣고 비벼먹는 산채정식(5,000원)은 자연을 입에 담는 듯하며, 보들보들한 춘두부(3,000원)와 고소한 도토리묵(3,000원)은 고향의 맛을 전해준다. 달짝지근하면서도 알싸한 맛이 일품인 남산신선주(한 되 5,000원)도 빼놓을 수 없다.

■ 주소 경주시 내남면 용장3리 875번지 ■ 문의 054-748-3374



신라인들의 聖地, '남산'에 오르다

한국사람 치고 경주에 가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불국사, 석굴암, 안압지, 첨성대 등 수학여행부터 시작해서 한두 번쯤은 신라의 천년고도 경주를 둘러봤을 터. 그러나 경주 남산에 올라본 이는 몇이나 될까. 어느 향토사학자는 "남산을 보지 않고 신라를 안다고 할 수 없다."고 단언한 바 있다. 경주지부 김정훈 지부장이 남산을 소개한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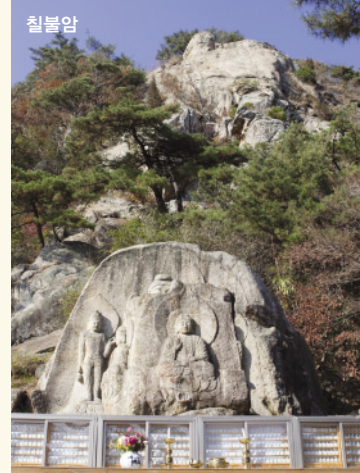
그 이름처럼 경주 시내 남쪽에 위치한 남산은 '지붕 없는 불교박물관'이다. 경주시 전체가 노천 박물관이나 다름없지만, 남산에는 절터 112곳, 석불 80체, 석탑 61기, 석등 22기 등 불교 관련 유물과 유적들이 수두룩하게 널려(?) 있다. 불교가 신라에 전파된 이후 발달한 숭산신앙과 암석신앙이 남산에 집중된 것이다. 산길을 오르다 보면 여기저기에서 석탑과 불상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 가히 '부처의 세계'라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김 지부장이 인도한 등산로는 칠불암과 고위봉(494m)을 거쳐 용장골로 내려오는 2시간 남짓한 코스이다. 남산의 남쪽 봉우리를 동에서 서로 횡단하는 것으로, 경사가 완만하고 볼거리가 많아 가족이 함께 걷기에 좋은 길이다. 등산로는 산책길처럼 편안하게 이어지다가 뻑뻑한 대숲이 나타나면서 조금씩 가파르게 각도를 세우기 시작한다. 대숲을 지나면 갑작스레 파란 하늘이 시원하게 펼쳐지는데, 그 뒤로 칠불암이 고즈넉하게 자리하고 있다.

칠불암은 일곱 마애불상이 모여 있다 해서 불은 이름이다. 암자 오른쪽에 덩그러니 바위가 하나 놓여 있고, 면면에 부처님이 새겨져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있다. 그 뒤쪽 반구형의 커다란 암석에는 삼존불이 병풍처럼 든든한 배경을 이루었다. 선명한 옷 주름과 연꽃문양, 섬세한 표정이 8세기경에 조각된 것이라니, 천 년을 훌쩍 넘는 시간을 가능할 길이 없다. 칠불암을 뒤로 하고 바윗길을 오르면 신선암 마애보살반가상이 나타난다. 절벽 끝에 바짝 다가서 있는 마애보살반가상은 구름 위에 떠서 경주 시내를 굽어보는 듯 신비롭고 경건하다.

고위봉을 지나 용장골로 내려오는 길에서는 경주의 넉넉한 품이 눈을 사로잡는다. 아가지기한 산들이 잔잔하게 치맛자락을 펼치다가 들판으로 이어지고, 평평한 들에는 어김없이 사람들이 모여 살며 논과 밭을 일구었다. 포근하고 정겨운 고향 같으면서도 고도의 기쁨이 느껴진다. 천 년 전, 남산에 올라 불상을 돌며 새기던 신라 석공들이 바라봤을 서라벌의 풍경이다.

■ 문의 경주시청 문화관광과 054-779-6394, guide.gyeongju.go.kr



하루 200km 강행군은 기본이죠!

경주지부 특별기동팀 윤기대 조합원

_ 산길 어귀에서 젓 먹던 힘까지 끌어올리는 듯한 기합소리가 터져 나왔다. 마치 역도선수가 바벨을 들어올리기 직전 토해내는 그것처럼 몸속 깊은 곳으로부터 힘을 모으는 소리. 전주에 올라선 경주지부 특별기동팀 윤기대 조합원의 목소리였다. 도로 공사가 진행되면서 전주의 위치가 바뀌어 기존의 통신선을 새로운 전주로 끌어와 고정시키는 작업이었다. 100kg은 훌쩍 넘을 것 같은 통신선들은 몇 번의 기합 만에 제자리를 찾았다. 찬바람이 부는 날씨였건만 안전모 밑으로는 굵은 땀방울이 흘렀다. 그가 KT에 입사한 것은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열리던 때였다. “군에서 통신 주특기를 받아 유선 통신병으로 병역을 마친 것이 인연이 되었어요. 선로 유지·보수와 지하 케이블 탐지, 대형공사장 관리 등으로 경주, 포항, 구미 등을 돌아가며 근무를 하다 보니 어느새 22년이란 세월이 흘러갔지요.” 경상도 남자 특유의 낮고 무던한 목소리로 그는 지나간 세월을 더듬었다. 하지만 그의 굵은 손마디에 덧붙은 굳은살은 녹록치 않았던 삶을 대변하는 듯했다.

_ 경주지부 특별기동팀은 실 틈이 없다. 드넓은 경주지역을 하루 200km 이상 달리며 현장을 찾아다녀야 하기 때문이다.

낙뢰 피해가 빈번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출동해야만 했어요. 저 멀리 하늘에서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하면 불안해서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야말로 동에 번쩍 서에 번쩍, 경주의 홍길동들이 따로 없는 셈이다. 하루 100통 이상의 전화가 걸려오지만, 벨소리가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다. 법으로 허용하는 화물 높이를

초과한 채 운행하는 대형 차량들이 전주와 가공선로를 망가뜨린 것은 아닌지, 공사장에서 지하 케이블을 잘못 건드린 것은 아닌지 항상 노심초사다. 밤에 잠을 잘 때도 그의 머리맡에는 언제나 휴대폰이 놓여 있다. “경주 인근의 울산과 포항에는 중공업 공단이 있어요. 때문에 높이 5m 이상의 화물을 실은 대형 차량이 야간에 몰래 경주 지역을 지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또 최근에는 경주시가 방폐장(방사선 폐기물 처리장)을 유치하면서 국가 기금을 받아 도로 보수 공사를 시 곳곳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 케이블 탐지에도 눈코 뜰 새가 없어요.” 더군다나 농어촌 지역의

고객들은 시설을 구분하지 못하고 전기, 유선방송 등 KT와 관련 없는 민원을 신고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그는 그냥 돌아서는 법이 없단다. 이렇게 고객의 불편을 조치하고 고맙다는 말을 들을 때, 업무의 힘겨움은 보상을 받고도 남기 때문이다. 매사에 긍정적인 그이지만 젊은 후배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인터넷이 등장하고 나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10년 전만 해도 제 업무는 ‘전화국의 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거든요. 요즘 젊은이들은 의자에 앉아서 일하길 원하지만, 특별기동팀의 업무도 충분히 매력적이라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해요. 현장에서 고객들의 민원을 해결해주며 얻는 보람 그리고 특별기동팀 특유의 끈끈한 정과 팀워크는 어느 부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지요.”

_ 이마에 맺힌 땀을 훔치며 또 다른 현장으로 달려가려는 그를 붙잡고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하지만 차마 그럴 수는 없었다. 지금 그의 손길을 기다리는 현장이 그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일 테니까. 경주의 홍길동이 가는 길을 그 누가 막을 수 있으랴.

철탑처럼 늠름하고 단단한 남자

강서무선네트워크운용담당지부 엔지니어링1팀 오희표 조합원

●
_ 경기도 군포의 어느 외진 곳, 아름답리 철탑 하나가 외롭게 서 있다. 사람의 그림자도 드문드문한데 어디선가 인기척이 느껴진다. 설마 했는데, 높다란 철탑의 사다리를 오르는 남자가 눈에 들어온다. 올려다보는 것만으로도 다리가 후들거리건만, 그는 성큼성큼 망설임 없는 걸음으로 꼭대기까지 가뿐하게 올라선다. 한겨울의 찬바람도, 철탑의 아찔한 높이도 그에겐 문제될 것이 없다. 그는 철탑보다도 더 단단하고 늠름하다고 소문이 자자한 오희표 조합원이기 때문이다.

그는 1998년(KTF)에 입사해 현재 강서무선네트워크 운용담당지부 엔지니어링1팀에서 안양, 군포, 의왕지역의 무선망 최적화 업무를 맡고 있다. “가입자들의 원활한 음성통화와 데이터 서비스를 위해 최적의 무선망 설계를 책임지고 있어요. 고객센터를 통해서 접수된 VOC(Voice Of Customer)가 엔지니어링팀으로 넘어오면, 광중계기나 인빌딩 장비 등 8가지 솔루션 가운데 가장 적합한 장비를 선택해 최적의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지요. 사전에 VOC를 예방하기 위해 새롭게 개발된 주택가나 아파트단지 등에서 데이터를 측정하고, 장비를 투입하는 것도 저의

요즘은 일이 즐겁습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관계들 속에서 '나'란 존재를 발견하는 기쁨이 커요.



주된 업무입니다.” 이렇게 가입자들을 위해 날씨를 가리지 않고 외근을 나서지만 종종 일반 시민들과 마찰을 빚는 경우도 있었다. 기지국이나 중계기를 설치하려고 하면 전자파를 우려하는 민원이 빗발쳐 장소를 옮기거나 아예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TV보다도 영향력이 적은 약전인데, 전자파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현장에서 시민들과 입씨름을 해야 할 때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하지만 경쟁사 대비 우수한 통화품질을 먼저 확보하게 되었을 때 느끼는 희열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군포의 수리산 등산로는 통화가 전혀 안 되는 곳이었어요. 군포시와의 협의도 쉽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30m 높이의 강관주를 처음 세워 광중계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지요. 이처럼 통화품질 개선이 어려운 곳을 제 끈질긴 노력으로 해결해냈을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낍니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의 소신은 ‘깔끔함’이다. 군더더기 없고,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한 그의 일처리는 동료들 사이에서도 정평이 나 있다. 파트너로 함께 일하는 한상두 조합원은 “효율적이고 깔끔한 일처리는 오희표 조합원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37살이라는 나이에 비해 협력업체와의 유지·보수 업무도 원활하게 해내고 있어요. 자신의 업무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지요.”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_ 일에 있어서는 ‘완벽주의자’에 가까운 그이지만, 가정으로 돌아가면 한없이 자상한 남편이자 8살 난 딸아이의 아빠이다. 수원에서 안양까지 3년 가까이 자전거로 출퇴근하며 살을 빼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가족을 위해서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든든한 버팀목으로 우뚝 서 있는 그가 그렇게 단단해 보일 수가 없다. 이야기를 끝내고 돌아가는 그의 뒷모습이 마치 수십m 높이의 강관주처럼 듬직하다.

2010년, 조직 통합을 위해 뛰다!

kt rental 노동조합

_요즘 TV를 시청하다 보면 재미있는 광고가 눈길을 끈다. ‘○○○자로 끝나는 말은?’ 으로 시작되는 KT렌탈의 광고는 일상에서 펼쳐지는 코믹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렌터카의 필요성을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키고 있다. 렌터카 업계의 확고부동한 1위인 금호렌터카와 KT가 만나 어떤 시너지효과를 낼 것인지 기대를 모으는 시점, KT렌탈 노동조합 역시 조직을 재정비하고 높고도 멀리 뛰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3사 통합, 그 분주했던 시간

_KT렌탈 노동조합의 최근 역사는 복잡다단하다.

2009년 1월 대한통운이 금호렌터카를 인수하고, 기존 택배렌터카본부에서 렌터카 사업을 떼어내 금호렌터카와 함께 렌터카 부문을 총괄 운영해왔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자금 사정으로 렌터카 부문을 매각하기로 하고, 이를 KT가 인수하기로 결정하면서 KT렌탈로 합병되었다. ‘KT렌탈’ 라는 새로운 브랜드가 탄생한 배경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노동조합도 적잖은 혼란을 겪어야 했다. 말 그대로 ‘한 지붕 세 가족’ 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조직을 꾸려나갈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던 탓이다. 노동조합이 없었던 금호렌터카 직원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와중에 매각이 결정되었고, 당시 별도 노동조합을 설립했지만 KT와 실질적인 법인 통합이 이뤄지기 전까지 노조 활동은 미미할 수밖에 없었다. KT렌탈 류경오 위원장은 “더군다나 올해 6월 1일 KT렌탈의 오토 부문(차량 렌탈)만 통합이 이뤄지고, 비오토 부문(장비 렌탈)은 8월로 미뤄져 그 이전까지 조합원 구성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체 통합이 이뤄지지 않으면 조직 구성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비오토 부문의 통합은 주주 쪽에서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내년으로 미루었어요. 다행히, 현

왼쪽부터 시계방향 이종민 쟁의조직국장, 류경오 위원장, 이진호 사무국장, 이정준 회계국장, 유택중 회계국장



KT그룹 전 임직원 금호렌터카 최고 50% 할인 안내

- 대상 : KT그룹 전 임직원
- 할인내용 : 내륙지점 50%, 제주지점 30% 할인
* 단, 24시간 이상 대여시 할인적용 / * 중복할인 및 금호렌터카 포인트 적립 불가
- 예약방법 : 인터넷 또는 전화
* 인터넷 : KT복지관 내 금호렌터카 예약하기 / * 전화 : 금호렌터카 콜센터(1588-1230)
- 기타 : 금호렌터카 지점에서 차량대여시 KT그룹 임직원을 증명할 수 있는 사원증 또는 명함 제시



대표이사 이희수 사장님의 노사상생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한 지원 덕분에 금년 8월부터 노동조합의 조직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11월 각 권역별로 대의원을 선출해 조직의 기반을 마련한 KT렌탈 노동조합은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는 셈이다.

조직 통합을 위해 달릴 것

_류 위원장을 비롯한 각 부서장들의 가장 큰 고민은 조직의 매끄러운 통합이다. 3사 직원들이 짧은 시간 내에 뒤섞이다 보니 아직까지 융화되지 못하고 서로 걸도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류 위원장은 “올해까지는 조직의 체계를 완벽하게 잡고, 내년부터는 조직의 통합을 위해 발로 뛸 계획입니다. 영업소를 포함해 전국에 80여 개의 지점이 있어 쉽지는 않겠지만, 직접 만나고 이야기하면서 조합원들과 소통할 것입니다. 유선, 핸드폰, 메일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언제라도 조합원과 집행부가 ‘스킨십’ 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합원 간의 보수체계 및 복리후생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도 향후 중점 추진사항이다. 현재 출신 회사별로 상이한 보수와 복지 체계를 일원화하여

조합원들이 차별 없는 대우를 받게 하는 것이 조직 통합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또 당사의 당면 과제인 통합법인의 안정화와 체계 구축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이뤄내야만 이후의 상호보완적인 노사관계 구축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KT그룹노동조합 및 KT계열사노동조합과 상시적인 정보교류 채널을 마련해 상호간 이해도와 인지도를 높이고, 친밀한 공동체의식을 강화하는 것도 내년을 바라보는 KT렌탈 노동조합의 간절한 바람이다.

interview _ KT렌탈 노동조합 류경오 위원장



류경오 위원장은 대한통운 시절부터 지부장을 맡아오다가 지난해 11월 별도 노동조합을 설립하며 위원장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노사관계는 ‘선의의 경쟁자’와 같은 것이다. “회사가 추구하는 이윤과 노동조합이 추구하는 조합원 권리의 실현은 서로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지요.” 회사와 노동조합이 눈앞의 작은 이익에 민감하게 대립하기보다는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서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간 류 위원장은 KT렌탈 노동조합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에서 조직의 토대를 만드느라 동분서주했다. 이제는 높고 멀리 뛰기 위해 한껏 웅크린 자세를 활짝 펼쳐야 할 시기이다. “조합원 평균 연령이 약 34세로 매우 젊습니다. 패기와 열정이 넘치는 KT렌탈 노동조합의 도약을 지켜봐주세요.”

소셜네트워크의 진화는 계속 된다

소셜네트워크와 함께 보내는 하루



_ 최근 소셜네트워크의 무한 확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스마트폰의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개념이 추가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진 것이다. 위치기반서비스는 이동통신망이나 위성항법장치(GPS) 등을 통해 얻은 위치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시스템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위치기반서비스와 결합된 형태뿐만 아니라, 게임적 요소를 추가해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재미를 선사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세계 최대 인맥사이트 '페이스북'은 사용자들이 자신의 위치를 공개하고 친구들의 위치를 알 수 있는 '플레이스(place)' 서비스를 시작했다. 트위터도 사용자가 글을 올릴 때 자신의 위치를 표시해 위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_ 네이버의 단문블로그인 미투데이도 글과 사진을 올릴 때 자신의 현재 위치를 함께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에서 검색하면 현재 나의 위치를 반영한 검색 결과를 보여준다. '포스퀘어'의 주요 기능을 대표적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들이 도입한 것이다.

'포스퀘어'는 사용자의 위치를 기준으로 주변의 아이폰 사용자와 특정 장소에 대한 각종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트위터와 연동도 가능하다. 사용자가 특정 장소에 자주 '체크인'을 하면 지위가 올라가는 게임 요소까지 갖췄다.

KTH는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아임인'을 선보였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의 '플레이스', 시온의 '시온' 등이 한국판 '포스퀘어'를 표방하고 나섰다. '아임인'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남긴 글과 사진을 지도상에서 실시간으로 검색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게 특징이다.

근접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인사이트'는 커피숍, 공항, 쇼핑몰 등 한정된 공간에 존재하는 인사이트 사용자의 개인 프로필을 인근의 사용자들에게 방송(공개)한다. 관심 있는 프로필을 발견하면 간단한 메모를 보낼 수 있다. 인근의 사용자와 프로필을 공유하므로 가까운 곳에서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다.

카카오톡은 온라인 메신저 서비스를 아이폰으로 옮겨왔다. 아이폰 사용자간 실시간 채팅을 할 수 있는 연락처 기반의 메신저 서비스다. 언제 어디서나 즉각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고 사진, 동영상, 연락처 등 멀티미디어도 손쉽게 전달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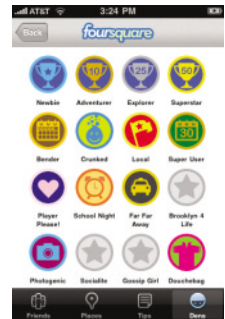
- **30대 직장인 김상진씨**
30대 직장인 김상진씨의 점심시간, '오늘은 뭘 먹을까?' 매일같이 반복되는 직장인의 딜레마다. '라스트서퍼'를 이용해 회사 주변 0.5km 이내의 음식점 정보를 검색한다. 가격, 음식종류, 특징을 선택하면 조건에 맞는 음식점 리스트가 한 눈에 표시된다. 사용자들의 품평이나 인기도를 확인할 수 있고 지도로도 볼 수 있어서 쉽게 찾아갈 수 있다.
- **20대 대학생 박현석씨**
친구들과의 저녁 모임, 약속장소에 먼저 도착한 박현석씨는 친구들을 기다리는 동안 '아임인'에 '발도장'을 찍는다. 친구들에게 연락할 때는 '카카오톡'을 이용한다. 온라인 메신저처럼 실시간, 다자간 채팅이 가능해 문자메시지보다 편리한데다 와이파이가존에서는 무료이기 때문에 자주 이용한다.
- **30대 주부 이민정씨**
인사이트에서 취미와 연령대가 비슷한 동네 주민을 알게 됐다. 마침 아이의 나이도 비슷해서 자주 만나 육아와 살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결혼과 함께 낯선 동네로 이사해 외롭게 지내던 이민정씨는 동네 친구가 생겼으며 만족스러워한다.



< 라스트서퍼 >



< 아임인 >



< 포스퀘어 >

북한산에서 스파이더맨을 만나다!

산이 좋아 등산을 즐기다가 바위에 '찰싹' 붙어버린 사람들이 있다. 스파이더맨처럼 로프 하나만을 믿고 깎아지른 암벽을 오르는 KT 산악회 회원들. 위험천만해 보이지만 그들의 얼굴엔 생기가 가득 넘쳐난다. 힘겹게 중력과 싸워가며 보기만 해도 아찔한 절벽을 타는데 무엇이 그리 즐거울까? 바위에 한 번 붙어보면 알게 된다. 그 짜릿함, 그 희열, 그 끈끈한 동료애를 말이다.

왼쪽부터 임송열(광화문해화 특별기동팀), 정승호(강동NSC 송파운용팀), 김선기(경기남부마케팅단 여주지사), 박만우(수도권고객센터 기업상담팀), 김익근(강북햇운운단 운용지원센터), 한찬우(강북엔지니어링센터 감리2팀), 김연관(경기남부NSC SHOW운용팀), 정은기(도봉 특별기동팀), 장용숙(강동NSC 송파운용팀)



먹구름도 피해가는 천운의 산악회

새벽부터 훑날리기 시작한 진눈깨비에 걱정이 앞섰다. 이런 날씨에 산행도 만만치 않을 텐데 암벽 등반이라니... 하지만 북한산 도선사 입구에서 만난 KT 산악회 회원들은 거리낌 없이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저희가 산에 오르기만 하면 항상 날씨가 좋아지곤 했어요. 축복 받은 산악회라고 다른 산악회 분들이 부러워할 정도죠." KT 산악회 김선기 회장(여주지사 지사장)이 걱정 말라며 던진 말이다. 아닌 게 아니라 노적봉에 가까워질수록 먹구름이 열어지기 시작했고, 어느 틈엔가 파란 하늘이 드러난다.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일반적인 등산로를 벗어나 소위 '바위꾼' 들만 안다는 길로 접어들었다. 말이 '길' 이지 사람이 지나다니 흔적조차 희미한 산길이다. 얼마나 걸었을까. 어느 순간 노적봉의 우뚝한 자태가 한눈에 들어온다. 경사가 80도는 되어 보이는 가파른 거암이다. KT 산악회 회원들은 눈을 초롱초롱 빛내며 장비를 착용하기 시작했다. 안전벨트를 두르곤 캠, 카라비너, 하강기 등을 주렁주렁 벨트에 매단다. 등산화를 암벽화로 갈아 신고 나면 준비 끝. 이제 가슴 두근거리는 바위와의 대면이 시작되는 것이다.

2인 1조가 되어 선등자가 길을 개척하고, 후등자는 밑에서 선등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튼튼한 로프로 몸무게를 지탱해준다. 암벽은 발 디딜 틈도 없이 매끈해 보이는데 회원들은 성큼성큼 앞으로, 아니 위로 나아간다. 바위에 착 붙어 가는 모양새가 영락없는 스파이더맨이다. 5년째 KT 산악회에서 암벽을 타고 있는 박만우 조합원은 "암벽은 산의 일부예요. 산을 오르다보면 욕심이 생기기 마련이지요. 생각만큼 그렇게 힘들거나 위험하지도 않아요. 필요한 것은 힘이랑기보다는 균형과 유연성이예요. 익스트림 스포츠이긴 하지만 교육만 잘 받는다면 안전도 문제없어요. 참고로 저희 산악회는 지금까지 큰 사고가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등산과 암벽 등반의 가장 큰 매력은 자연과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산과 바위를 오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산과 마주하고 접촉하며 자연의 일부가 되는 일이다. 특히 암벽을 오르다보면 잡념이 끼어들 틈이 없다. 집중하고 또 집중해야만 한 걸음씩 위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무념무상, 오로지 '산' 과 '나' 만이 존재하는 시간이다.

세계 7대륙 최고봉에 도전한다

KT 산악회는 지난 1997년 설립되었다. 김선기 회장이 구 서울본부 재직 당시 서울 지역의 52개 전회국산악회를 근간으로 서울연합산악회를 결성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 현재 전체 회원이 250여 명, 정회원이 60명으로 14년 동안 한 차례도 빠짐없이 정기 산행(매월 셋째 주 일요일)을 해오고 있다. 2001년부터는 전문 등반학교를 운영하며 기초적인 등산이론은 물론, 전문 암·빙벽 등반 기술을 전수하고 있다. 처음에는 한국산악회 강사진을 초빙해 교육을 진행했지만, 내부 역량이 커가면서 자체 강사진으로 1:1 개인교습을 실시하고 있다. 직장 산악회에서는 보기 드문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역량에 힘입어 국내뿐 아니라 매년 한두 차례 해외 원정에도 나섰다. 알프스 몽블랑(4,100m), 중국 쓰구냥(5,454m), 히말라야 로부 체이스트(6,116m) 등 세계적인 거봉들을 차례로 등정하며 KT 깃발을 정상에 꽂았다. KT 산악회의 가장 큰 꿈은 '7대륙 최고봉 도전'이다. 아시아의 에베레스트(8,848m), 아프리카의 킬리만자로(5,895m) 등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을 뛰게 하는 거봉들이다. 김 회장은 "이를 위해 지난 10년 간 훈련해왔어요. 2011년부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전할 계획입니다. 다른 공기업 산악회의 경우 고산등정 프로젝트를 위해 경비와 일정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경비는 개인이 부담하더라도 복무처리만이라도 회사에서 배려해 주신다면 7대륙 최고봉 정상에 KT 깃발을 꽂아 IT 분야의 선구자로서 KT의 끝없는 도전과 위상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라며 "많은 조합원들의 참여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고 포부를 밝혔다.

산악회 소개 및 회원가입 문의 | 산악회 홈페이지(www.ktsan.com) 참조



interview _ KT 산악회 한찬우 조합원

"제 전화번호 끝자리가 무엇일까요?" KT 산악회의 한찬우 조합원(강북엔지니어링센터)의 전화번호 끝자리는 '8848'이다. 바로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의 높이다. 언젠가는 꼭 KT 산악회 회원들과 그 높이에 올라서겠다는 염원이 담겨 있는 것이다. 이쯤 되면 그의 '산사랑'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산과 바위를 좋아하던 그는 1996년부터 전문 등산을 시작했다. 그러다가 2002년 KT 산악회에서 활동하기 시작했고, 매달 정기산행은 물론이고 매주 암·빙벽 등반에도 교박교박 참여하며 산악회의 핵심 멤버가 되었다. 현재 산악회 기술부장을 맡아 정은기, 정승호 조합원 등과 함께 자체 클라이밍스쿨에서 전문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한 조합원은 KT 산악회에서 활동하며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3,700m), 알프스 몽블랑(4,100m), 중국 얼꾸냥(5,454m) 등 해외의 고산을 오르기도 했다. 특히 2년 전 산악회 회원들과 네팔 히말라야의 로부체 이스트봉(6,119m) 등반에 성공했던 순간은 잊을 수 없다. "회원들과 수없이 많은 등반을 하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지만 로부체는 정말 힘들었어요. 짧은 일정 때문에 고소에 적응할 틈도 없이 등정을 계속해 머리가 깨질 듯한 고통과 호흡곤란을 겪었어요. 하지만 어렵고 힘들었던 만큼 성공의 기쁨도 컸죠."

그가 말하는 산과 바위의 매력은 한계를 뛰어넘는 것에 있다. "암벽의 매력은 극한 상황, 수직의 벽, 체험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도전이예요. 혼신의 힘을 다해 불가능할 것 같았던 한계를 넘어섰을 때의 성취감과 희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KT 동료들과 산에 대한 열정을 나누고,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느끼는 끈끈한 정도 중요한 매력 포인트입니다."

암·빙벽이 목숨을 건 스포츠라는 사람들의 '오해'는 그를 늘 안타깝게 한다. "근래에 등산인구가 늘어나면서 사고도 심심찮게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사고를 들여다보면 전문적인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고,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KT 산악회는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전문적인 등반 활동을 해오고 있어요. 안전하게 산과 바위를 즐길 수 있는 모임이거든요. 산을 사랑하고 전문 등반에 관심이 있다면 언제든 환영입니다."



KT 산악회 클라이밍 스쿨 산악대장

은빛 설원을 달리는 겨울 여행의 진수

동심의 추억 속으로 떠나는 겨울 눈꽃열차여행



겨울이면 오히려 찬바람이 그리워진다. 폭설과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사이, 야외활동은 뜸해지고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코가 싸하도록 맑고 차가운 공기, 껏볼을 스치는 서늘한 바람에 가슴과 머릿속은 도리어 맑아지는 기분이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마음만은 여유를 찾고 싶은 연말, 겨울 여행지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싣는 이들이 늘고 있다. 달리는 기차에서 바라보는 설경은 일상에 지친 도시인에게 신선한 활력이 되기에 충분하다. 은빛 설원으로 떠나는 겨울여행의 진수, 이번 겨울 눈꽃열차여행을 계획해 보자.



● 겨울 여행의 백미 눈꽃열차

_ 올 겨울 눈꽃열차는 대표적인 설경코스인 태백산, 설악산, 오대산, 대관령, 정동진, 덕유산, 대둔산, 내장산, 주왕산 등을 중심으로 운행된다. 눈꽃열차 패키지 상품은 여행사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가격은 4만2000원에서 9만8000원으로 다양하다. 겨울 바다의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바다열차와 강원도 아우라지 강변을 따라 눈꽃을 감상하는 묘미를 즐길 수 있는 정선레일바이크도 포함돼 있다. 눈꽃열차의 백미인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순백의 설원과 아담한 간이역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_ 대관령 양떼목장 주변 선자령 등은 초급자들이 눈꽃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 코스다. 대관령 기상대 방면으로 난 길을 따라 걷는 데 왕복 3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능선을 따라 오르면 시야가 탁 트인다. 멀리 동해를 조망할 수도 있다. 바다를 배경으로 끝없이 펼쳐진 눈꽃 밭이 절경이다. 평창에서는 2011년 2월 12일부터 대관령눈꽃축제가 열린다. 눈·얼음 조각전을 비롯해 전통 썰매 타기, 설피 걷기, 팽이치기 등 겨울 전통 놀이 체험이 진행된다. 또 감자, 고구마, 황태 등 대관령 지역의 먹을거리 장터도 운영된다. 드라마 <모래시계>로 유명해진 정동진은 설명이 필요 없는 대표 관광지. 대관령과 정동진을 연계한 열차 여행은 겨울 낭만을 만끽하기에 제격이다.



- **진안 마이산 눈꽃 열차**

_ 겨울이 찾아온 진안 마이산은 두 봉우리를 제외한 나머지 능선만 눈이 쌓인 모습이 붓에 먹물을 찍은 것과 같다 하여 '문필봉'이라 불린다. 문필봉의 절경을 감상하는 것이 '진안 마이산 눈꽃열차'의 포인트.

오전 10시 25분 용산역에서 출발해 익산역을 거쳐 마이산에 도착할 때까지 눈 덮인 산과 계곡을 질주하며 즐기는 눈꽃열차여행은 다이나믹하다. 교통 체증에 시달릴 걱정 없이 그저 즐기기만 하면 되는 여유로움이 오랜만에 편안함을 선사할지도 모를 일이다. 마이산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설경이 반겨준다. 마이산은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남쪽과 소백산맥과 노령산맥의 경계에 있는 산이다. 동봉과 서봉의 모양이 말의 귀처럼 생겼다 하여 마이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말의 귀를 닮은 두 바위 봉우리와 주변에 무수히 쌓인 돌탑들을 둘러보는 재미는 감탄을 자아내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또 마이산 안에는 겨울철 정화수를 떠 놓으면 얼음기둥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역고드름 현상'이 일어난다.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마이산만의 신비한 관광객들에게 신비로운 체험을 선사해줄 것이다.

- **덕유산 향적봉 눈꽃, 무주리조트 기차여행**

_ KTX를 타고 서대전역에 도착, 연계버스를 타고 무주리조트로 이동한 후 곤돌라를 이용해 해발 1,522m 덕유산 향적봉 정상까지 올라가게 된다. 백두대간 끝자락에 우뚝 솟은 덕유산은 주봉인 향적봉을 기준으로 해발 1,300m대의 능선이 남서쪽으로 길게 뻗어있고, 주능선 양옆으로 수많은 갈라지를 펼치면서 거대한 산군을 형성하고 있다. 때문에 봄이면 철쭉, 여름이면 신록, 가을이면 단풍, 겨울이면 설경이 장관을 이룬다. 특히 온 세상이 눈에 뒤덮여 있는 듯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이곳의 설경을 보고 있노라면 일상의 스트레스쯤은 단숨에 날려버릴 수 있을 것만 같다.

덕유산 자락의 아름다운 눈꽃 길을 트래킹한 후 무주리조트로 내려오면 눈썰매장을 비롯한 각종 편의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덕유산에 자리 잡은 무주리조트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산악형 리조트다. 전국 주요도시에서 2시간 안이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으며, 다이나믹한 레저 스포츠시설은 물론 특급호텔 및 다양한 유럽형 숙박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때문에 이곳을 등지고 서대전역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을 듯 싶다.

- **내장산 눈꽃, 겨울바다 낭만 기차여행**

_ 내장산의 설경과 더불어 각종 드라마 촬영지를 감상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최고의 낙조 여행지 가운데 하나인 변산반도 겨울바다를 감상할 수 있다. KTX를 이용해 정읍역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내장산의 설경이 반겨준다. 조선 5대 명산으로 손꼽히는 내장산은 가을에는 만추라 불릴 정도로 단풍이 아름답다. 예로부터 눈이 많이 내리기로 소문난 이곳의 겨울 풍경은 가을철 단풍 터널을 이루었던 가로수 길이 눈으로 뒤덮이면서 절정에 달한다. 이를 증명하듯 매년 1월 내장산에서는 내장산 눈꽃 축제가 개최되기도 한다

- **딸기 따기 체험, 대둔산 눈꽃열차**

_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청정지역 양촌에서 재배하는 논산 딸기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딸기다. 특히 그린투어 체험장에서 이루어지는 딸기 따기 체험은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맛과 향이 좋은 신선한 딸기를 수확하고 그 기쁨이 채가시기 전에 그린투어 체험장을 벗어나면 대둔산 도립 공원에 도착하게 된다. 대둔산은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논산시 벌곡면과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의 경계에 있는 산. 부근의 오대산, 월성봉, 천등산 등과 함께 노령산맥의 북부를 형성하며, 수십 개의 봉우리가 6km에 걸쳐 솟아 있다. 대둔산 계곡과 건강오솔길을 산책하고 220계단을 오르내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물아일체의 경지에 이를지도 모를 일. 딸기 체험에 이어 자연과 하나가 되는 기회를 제공해줄 이 여행은 가족과 함께하면 더 없이 귀중한 체험이 될 듯하다.

겨울철 약이 되는 건강차



요즘처럼 차가운 겨울 날씨엔 따뜻한 차를 자주 찾게 된다.

예부터 몸을 따뜻하게 하고 피로 회복과 원기 보충을 위해 겨울철에는 차를 즐겼다. 한의사들은 “한방차로 한약만큼의 효능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기관지와 호흡기 질환이 생기기 쉬운 가을·겨울철 체온 유지와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눈으로 보고, 코로 마시는 ‘국화차’

국화차는 말린 감국의 꽃잎으로 만든 차다. 국화에는 비타민 A, 비타민 B1, 콜린(비타민 B를 이루는 물질 중 하나)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이는 간장과 눈을 보호하고, 감기와 두통, 기관지염 등에 효능이 있다.

■ 마실 때마다 찻잔에 국화 한두 잎을 넣고, 끓인 물을 적당히 부어 마시면 된다.

겨울 대표 한방차 ‘쌍화차’

쌍화차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로회복에 좋다. 또 호흡기 질환, 감기예방에 효과적이고 몸의 저항력을 높이는 차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속이 좋지 않거나 몸에 열이 있을 때는 피하는 것이 좋다.

■ 황기, 계피, 감초, 당귀 등 쌍화차 재료와 물, 생강을 함께 넣어 달인다. 물이 좋아들면 면보나 거스주건에 싸서 약을 짜듯이 짠 후 찻잔에 담아 마신다.

피로를 물리치는 ‘사과차’

사과를 넣어 끓인 약차로 위장을 부드럽게 해 다이어트 식단으로도 좋다. 사과의 당분은 젖산을 없애 피곤을

덜고 세균 번식을 억제해 음식으로 인한 배탈을 없앤다. 장운동을 촉진해 변비 치료에도 효과가 좋다.

■ 사과를 껍질을 벗기고 얇게 썰어 놓는다. 용기에 사과를 듬뿍 눌러 담고 설탕 시럽을 함께 넣어 두면 사과청이 완성된다.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조금씩 물에 타서 마신다.

위장 튼튼! ‘생강차’

생강차는 생강을 넣어 달여 마시는 차로 추운 날 마시면 땀이 나고 체온이 상승해 보온 효과가 있다. 생강에 포함된 비타민 C와 단백질은 위장을 튼튼하게 보호한다.

■ 얇게 썬 생강을 흑설탕과 함께 재워두었다가 타 먹으면 된다.

한국 대표 전통차 ‘대추차’

대추차는 당질과 비타민 A·B1·B2가 많이 들어 있어 예로부터 건강차로서 애용돼 왔다. 신경쇠약·빈혈증·식욕부진·무기력, 그 밖에 피부를 윤택하게 하는 데 효과가 있다

■ 잘 익은 대추를 물에 씻어 말린 다음, 종이봉지에 넣어 습기가 없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매달아 두고 물에 달여 마신다.

Youth 장학생 감사편지



KT-강원본부 관계자 분들께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KT 노사 장학생인
춘천 고등학교 양기혁 입니다. 현재 학교공부를 충실하게 하고 있는데
이는 KT 관계자 분들의 아낌없는 지원이 바탕이 된 것 같아 먼저 감사할
마음이 앞섭니다. 여러분들이 주시는 장학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이어서 그런지 자습서나 참고서 등 책을 많이 사야했는데 많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있는 시간이 많다보니 학교에 돈도 많이 내야해서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장학생이 된 후 많은 부담이 줄어들었고
더욱 열정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보다 공부에 정진하여
KT와 같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기업에 입사하여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신 희망을 주고 더 나아가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전세계 청소년들에게, 환경적 요인으로 꿈을 포기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저에게
희망을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러기에는 저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저에게 주신 희망을 한되어 하지 않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12일 여름 캠프에 참가했을 때 양철이도 했고 처음으로 글라 다른 지역에
갔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친절함의 간직한 느낌을 받을 만큼
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것은 저에게 큰 행운
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유익하고 보람이 되
어서 내심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주신
것에 대해 거듭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친구들과 형, 누나들을
만나 진심어린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다음에도 이러한 캠프에 다시 참여할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했던바와 같이 저에게 주셨던 희망이 저의 주변을
친구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만날 날을 생각하며 이 글을 마칠까 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2010년 11월 8일 월요일
양기혁 드림



Voices of Readers

독자엽서 당첨자

오철환 충남 금산군 금성면 KT자산센터 충남자산팀
 조명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
 오유미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
 정현석 전북 전주시 완산구 KT전주지사
 조성우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SMB운용센터
 한중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최성규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이재욱 충남 아산시 권곡동
 김지영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KT송정사옥
 홍수민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강혜란 전주시 완산구 효사동
 조명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
 신성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홍희정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김진숙 충북 청주시 상당구 KT충북고객신용팀
 김옥동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권주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문원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KT송정사옥
 서여선 충남 계룡시 엄사면
 현기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생각하는 게임 '스도쿠'

스도쿠란 가로, 세로 각각 9칸씩 총 81칸으로 이뤄진 정사각형입니다.
 다음 3가지의 규칙에 따라 가로와 세로 줄에 1부터 9까지의 숫자를 적어 넣어보세요.

규칙 1)
 9칸의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고 한 번씩 사용되어야 합니다.

규칙 2)
 9칸의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고 한 번씩 사용되어야 합니다.

규칙 3)
 3x3칸으로 된 작은 상자(총9개)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고 한 번씩 사용되어야 합니다

9			5		1		8	3
	5			8		2		9
8	7		9			5	1	
5				6		1		4
		9	2	5		3	6	
7	6				9		2	
2		8	7			6		
	1		8	3			4	
4		5		1	2	7		8

아주 2010



당신 곁에는 언제나 KT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어느덧 2010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지난 한 해, 각자 바라던 소망과 다짐들이 결실을 이룬 한 해였기를 기원합니다.

노동조합은 2010년 단체교섭을 KT 발전과 복지향상이라는 기초 아래 무난히 마무리 짓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조합원 모두의 노력과 이해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더불어 이번 단체교섭은 회사의 신뢰와 도약을 재확인하고 조합원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약속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은 2011년 새해에도 조합원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회사와 조합, 사회, 그리고 고객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건전한 노사문화 발전에 앞장서는 선진 노동조합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노동자의 가치가 인정받는 사회를 위해 언제나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T노동조합은 고용안정을 토대로 화합과 나눔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